

# 급물살 탄 보수통합...호남중심 신당 탄력 받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9일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통추위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맡는다. 이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중도·보수 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통합의 정신을 담고 실현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히, 보수 통합의 결실물로 지적돼 온 탄핵 찬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정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총장은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왔는데 당 대표로서 전권을 위임받고 와서 동의했고 새보수당에선 정병국 의원이 이 발표에 동의했다"며 "현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겠다는 게, 바로 새 집이란 게 새로운 정당"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한국당이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양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안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 한국당·새보수당

### 통추위 구성·신당 결성 합의

### 위원장 박형준 교수

### 탄핵 문제는 결론 못내

### 호남 중심 제3지대 신당

### 내주 안철수 귀국후 본격 논의

### 安 "세대교체 밀알 되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는 안됐지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취지에 공감하는 어떤 정파·세력이라도 다 담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통합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정했으며, 통합은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사무총장은 "통추위는 아마 총선 일정에 맞춘다면 아주 빠르게 신당추진위 등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 뒤 임무를 다하겠다"며 "적어도 설 전에는 가시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수통합을 위한 통추위가 발족됨에 따라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물 밑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중에 귀국하면 제3지대 신당의 그림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바

른미래당 호남 중진들은 안 전 의원이 귀국하면 일단 바른미래당에 복귀한 뒤, 본격적으로 제3지대 신당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당 모 호남중진 의원은 "아직 구체적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쪽으로 흐름을 잡고 있다"며 "적어도 구성 전에는 구체적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전면적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저도 이런 담대한 전환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낮은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이어 "98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와 결합해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연합·연대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중도개혁을 중심 세력으로 확보하고 같이 나아가길 길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자칫 호남세력 연합으로 비취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균형있는 인사...배려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

### 청와대 "윤총장 불신임 아니다"

청와대는 9일, 전날 당행위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발언이나 평가를 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도 윤 총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그렇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

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올 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 4512억원 투입

AI 인프라 구축 1000억 투자  
자동차 공장 1000명 순차 고용  
노인 등 취약층 일자리 발굴

부터 예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간 약 4000억원을 들여 AI 연구소, 공공빅데이터 센터 등 AI 중심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올해 국비 626억원과 시비, 민자를 포함해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는 공모를 통해 연차적으로 1000여명을 고용한다.

신규 일자리 관련 사업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신규 일자리사업으로는 ▲청년 내일로 인턴 사업 ▲디자인 우수 인재 양성 일자리 사업 ▲e-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원 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국비 105억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 97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광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규모를 키우고 골목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 운영, 광주 상생 카드 발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5.6% 증가해 두 분야 모두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만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 중 효과가 큰 것은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문 대통령 14일 신년 회견...문답형식 90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새해 국정유상 문답을 통해 공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오는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로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예년과 달

리 별도 신년사 없이 문답형식의 회견을 진행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와

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신년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길 기대하고 있고,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 국민 1인당 매월 150만원씩 지급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정당 탄생!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로 하며, 3,000명 보좌관 폐지로 매년 1조8,000억원 절약 국민에게 돌려준다.

**배당혁명** 지자체 의원·단체장 선거 폐지,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으로 지자체 급여 매년 8,000억원 절약하며 지자체 선거비용 9,000억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

**결혼혁명**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핀다.

**배당혁명** 국가예산 60% 절약한 300조와 상류층 탈세를 막아 매년 200조, 재산비례벌금형으로 매년 100조,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므로 매년 100조와 500만 특수사업자 제도로 매년 100조 등 증가한 세수 800조로 20세 이상 국민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배당제 실시로 빈부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용자, 국민배당금 20세 이상부터 종신까지 1인당 150만원 지급한다.

**출산혁명** 출산시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전업주부수당(아동 10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한다.

**부채혁명** 1,500조 가계부채 1인당 5억 이내는 전액 국가가 탕감조치한다.

## 삼삼33정책 (중산주의 =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정당)

-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과 지자체 폐지로 매년 4조원 절약,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민의를 직접 살핀다.
-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와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로 정당지급금 매년 500억 절약
-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용자
- 출산혁명**: 출산수당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100만원(아동 10세까지 지급)
-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1인당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 지급, 빈부갈등 완전 해소
- 부채혁명**: 가계부채 1인당 5억원까지 탕감
- 배당혁명**: 20세 이상 매월 종신토록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 소득혁명**: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 세금혁명**: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까지는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제통합으로 년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방지로 200조 세수증가
- 신분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 교육혁명**: 수능폐지로 중고등학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 사법혁명**: 강력법 제의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으로 100조 세수증가
- 뉴딜혁명**: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실직자 해결
-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 취업혁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 유엔혁명**: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으로 세계 통일 준비
- 회피혁명**: 지하자금 회수해 회계 디자인 전문직으로 900조 지하자금 회수
-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 4개도로 통합(전경도, 경전도, 충강도, 제주도, 서울)
- 징벌혁명**: 징벌제폐지 모병제 실시
- 농지혁명**: 농지가려하게 폐지
- 농약혁명**: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 부패혁명**: 뇌물수수자만 처벌
- 어음혁명**: 어음보험공사 설치
- 생활혁명**: 서민거주권 보호, 고소보급금제 시행
- 보훈혁명**: 6·25, 월남 생존유족(유족) 5억원 지급, 월 300만원 지급
- 노동혁명**: 모든 노조 폐지하고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신속히 구제
- 도덕혁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용상제를 청감
- 장애혁명**: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 주택혁명**: 소형 서민 임대주택 대량 건립
- 벌금혁명**: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로 매년 100조 세수 증가
- 황사혁명**: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몽고·중국 협력으로 황사 완전차단 공사착수
- 식수혁명**: 농약사용 완전 금지,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 당원모집·봉사직 모집·02)783-8011~5  
 www.국가혁명배당금당.kr / 당비납부 : 국민은행 171301-04-311021 : 국가혁명배당금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혁명배당금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 배당금 지급! 가계부채 탕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빌딩 602호